

11월 4일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본격 돌입...19일 선거

총학생회는 경선, 총대의원회·총여학생회는 단독출마... 동아리연합회는 추후 공지

201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가 내달 4일 본격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훈) 주관으로 투표는 내달 19일 실시된다.

총학생회는 △‘하영Dream’ 정·원일권(영어영문학과 4) 부-안진호(경제학과 4)와 △‘진짜’ 정-고광표(경영학과 4) 부-김무송(법학과 3)이 경선을 펼친다.

총대의원회와 총여학생회 선거는 단독출마로 찬반투표를 하며, 총대의원회 후보에 △‘우선순위’ 정-고명찬(수학과 3) 부-고현우(수산생명의학전공 3)가, 총여학생회 후보에는 △‘여기부터’ 정-정승원(환경공학과 3) 부-안은지(관광경영학과 2)가 출마한다.

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실시된다. 또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회 주관으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투표일과 같은날에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교육대학은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교육대학 학과대표로 이뤄진, 열릴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대학 선거 일정과 계획이 세워진다. 이르면 11월 5일에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대의원회 선거는 다음달 12일 실시된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19일 각 단과대학교에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투표를 진행한다.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총학생회가 내달 5일과 13일에 걸쳐 두 번의 토론

회를 갖는다. 이후 총대의원회가 6일, 총여학생회가 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학생자치기구 정책토론회는 학생회관 한라테에서 진행된다.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 정책토론회=5일 △총대의원회 정책토론회=6일 △총여학생회 정책토론회=7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유세=11일 △총대의원회 선거=12일 △총학생회 정책토론회=13일 △부재자 투표 =15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유세 18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19일.

강수빈 기자



제주도 전역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과학대학 2호관 옆 재선충병 의심 소나무를 벌목하고 있다. 아래 캠퍼스에 식재된 7559그루의 소나무 가운데 72그루가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고 있다. 또 내년 1월께 정상목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경태 기자

총장후보자 공개모집 30일 마감

13일 오후 5시께 후보자 확정

총장임용후보자 공모희망자 접수가 10월 30일 마감된다.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치환)는 이 같은 내용을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이후 서류 보정기간(10월 31일부터 5일간), 적격 여부 심의(11월 4일부터 이틀간), 공모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공모지원자 선정 등 공고 확정 및 지원자 자료 공개열람(다음달

6일부터 8일간) 등을 거친다.

특히 다음달 13일에는 전날 실시된 단과대학 추천위원 선정투표를 토대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이 선정된다. 오전 7시에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개표를 시작한다. 이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단과대학 추천위원 등으로 선출된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명된다. 오후 1시부터 4시50분까지는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이 진행된다. 이후 추천위

원들의 투표로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된다. 이날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중계될 계획이다.

한편 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접수 이전 사전홍보에 관한 공지를 알렸다. 추천관리위원회는 △‘총장선거’ 등의 표현 및 접수 1전 사전 홍보의 취지가 의심되는 게시물 게시 또는 의견 제시 자체 △학내외 추천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총장공모에 접수한 공모지원자 중 특정 인물을 공개 지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김명지 기자

인력양성 최우수 등 6개 부문 수상

LINC사업단 산학연 엑스포 개막식서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이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산학연협력EXPO’ 개막식에서 6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LINC사업단은 이날 열린 ‘2013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력양성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상백 단장은 산학협력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대, 중앙일보 대학평가서 전국 39위

교수확보율·학생충원률은 전국 1위... 대학 교육여건은 전국 7위

제주대가 2013 중앙일보 4년제 대학 종합평가에서 종합 순위 3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종합순위 40위 보다 한 계단 오른 것이며 2011년 42위, 2010년 46위와 비교해 각각 3계단·7계단 상승했다.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주대는 한국해양대(37위), 홍익대(38위)에 이어 종합 순위 39위를 차지했다. 전국 9개 지역거점국립대 중에선 경상대와 강원대 보다 앞선 7위를 기록했다. 상위 30위권 이내 대학에 포함된 지방거점국립대는 부산대(18위)와 전북대 및 경북대(공동 19위), 전남대(26위), 충북대(29위) 등 5곳이 유일하다.

이번 종합평가는 매년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연구(100점), 교육여건(90점), 평판·사회진출도(60점), 국제화(50점) 등 4개 부문 점수(300점 만점)를 합산해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제주대는 이중 교육여건 부문에선 전국 7위를 기록해 ‘잘 가르치는 대학’의 면모를 확실히 하며 순위상승을 주도했다.

교육여건 평가는 △교수당 학생수 △교수 확보율 △학생당 도서관 구입비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세입증 납입금 비율 △학생충원율 △중도포기율 △세입 대비 기부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강의공개 등 11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

다. 제주대는 이 가운데 교수 확보율과 학생충원률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계열 평균 교수당 외부지원 연구비 12위, 자체 연구비 28위 등 교수연구 부문도 33위로 종합평가 순위 보다 높았다. 다만 국제화와 평판도가 낮아 30위권 이내 진입에 걸림돌이 됐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는 우리대학이 지속적 변화를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전국 20위권 내 상위대학 진입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 정원 감축·기성회비 운영 등 국정감사서 제기돼

“지역 특성 감안해 대학평가 획일적 기준 개선해야”

기성회비 부적절한 운용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제주대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렸다.

국정감사에는 허향진 총장을 비롯해 김익상 부총장, 신동범 교무처장, 김석중 학생처장, 송기민 사무국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박홍근(민주당) 의원은 “일부 국립대학이 대학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퇴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국립대가 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7일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에서 절대평가를 통해 전국 국립대학을 비롯해 전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새 구조조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계획안은 졸업생 취업률, 신입생 충원률 등 교

육부가 설정한 지표의 대학별 평가 결과에 따라 실행된다.

이에 대해 허향진 총장은 “특성화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만큼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거점대학의 경우, 그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 기성회비의 부적절한 운용 등이 지적받았다.

우원식(민주당) 의원은 “기성회

비를 가지고 부당하게 건물구입, 토지구입 등을 해왔다”면서 “제대로 대학 예산 이월금을 파악하면 이후에 학생들이 내야할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후(정의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성회계 문제를 지적했다. 법원에서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기성회비로 제주대가 지난 10년간 총 290억원이 넘는 건물, 장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외에도 △여성교수 임용, 여성보직자 비율 확대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지역 입학생 비율 확대 등도 지적받았다.

김명지 기자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취업전략본부, 11월 7일까지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가 ‘Ara야 취업 Job는다’ 취업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7일 오후 5시

에 마감되며, 캠프는 다음달 20일부터 2박 3일간 토폰리조트에서 진행된다.

40명을 모집하는 이번 캠프는 3·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2013년 8월 졸업자면 지원할 수 있다.

문의= 취업전략본부(전화 754-2304)

라운은 ‘즐겁다’는 의미의 순 우리말입니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라운그룹은 제주의 기업입니다.
라운가족은 현지 법인화를 통해 지방세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라운 임직원 369명 중 97%인 358명이 제주출신입니다.
모기업인 라온건설도 제주현지 법인입니다.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라온골프클럽, 라온프라이빗타운
농·축·수산 식자재도대부분 제주산입니다.

라운그룹은 라온골프클럽과 라온목장, 더마파크, 라온프라이빗타운,
라운호텔&리조트, 라온투어, 라온명품관 등의 관광사업을 통해
제주 서부권을 국내 최대 체류형 휴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운가족은 앞으로도 제주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써,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RAON GOLF CLUB
라운골프클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5-1000 FAX 064-795-1001

RAON PRIVATETOWN
라운프라이빗타운

라운프라이빗타운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금능길로 127
TEL 064-795-8008 FAX 064-795-8051

The馬PARK
더마파크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칠림리 산8번지
TEL 064-795-8080 FAX 064-795-8081

RAON名品館
라운명품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로 127
TEL 064-795-3200 FAX 064-795-3209

RAON TOUR
라운투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6-9651 FAX 064-796-9654

사설

대학발전을 ‘제대로’ 이끌 책임자는?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접수 마감에 부쳐

드디어 오늘로 제주대학교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접수가 마감된다. 공모가 지난 10월 10일에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지난주까지는 한 명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번 주 들면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접수한 응모자가 나타났는가 하면, 마감일인 오늘 접수하는 응모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수를 마친 응모자들은 이미 출사표를 학내 전자문서시스템의 게시판 등을 통해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제 오늘로 응모자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추천일정에 돌입하는 셈이다.

항간에 논란이 되었던, 현직 총장이 사퇴해야 응모 지원자가 될 수 있으나, 직무정지 상태로 응모지원자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추천관리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정리를 하였다. 교육부의 공식 답변과 제주대 교문변호사의 의견은 현재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대한 규정’의 조항들이 직무정지 상태로 응모지원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추천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참가자 만장일치로 이 유권해석에 근거해 임용후보자 추천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부 응모예정자가 학내 전자문서 게시판에 반발하는 글을 올린 했지만, 추천관리위원회의 입장대로 이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현 상황에서는 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모두가 ‘쿨하게’ 수용함으로써 정책 대결로 당당히 겨루는 것이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이제 제9대 총장임용후보 응모(예정)자들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자신이 왜 제주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서 적합한지를 제주대학교의 구성원과 관계자

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해야 한다. 홈페이지, A4양면 8쪽의 인쇄물, 인터넷, 전화 등이 규정된 홍보 수단이다. 응모자들이 공모 규정에 성실히 따랐다면 총장공모지원서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응모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행정, 봉사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였을 것이고,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경영계획서’에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세,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대학 경영 방침 및 계획, 조직 및 인사관리, 공직윤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응모자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교수·직원·학생·학부모·동문·도민들에게 12일까지 홍보하고, 13일에는 학내외에서 선출된 48명의 추천위원 앞에서 정책토론회와 합동토론회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하면 될 것이다.

직선제와는 달리 공모제에서는 정책 홍보 기간이 짧다. 토론회도 선정일 당일해야 이루어진다. 이런 점은 응모자들에게 불만일 수도 있지만, 직선제 폐지를 수용한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여건임에 비추어 응모자들은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호비방이나 상대방혈 뜯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이 어떻게 비교우위에 있는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지닌 능력의 우월성을 한껏 내세우는 방향으로 2주 동안의 기간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좋은 총장을 만나 대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사례를 우리는 적잖이 보아왔다. 과연 누가 우리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 제주대학교의 미래를 ‘제대로’ 이끌 것인지, 우리들의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라봉 축제 2.0을 기대한다

—제3회 사봉축제를 마치며

사라봉 축제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사라캠퍼스에서 열렸다. 축제 기간 동안 교육대학 학생회에서 6개, 각 전공 학생회에서 12개, 동아리 연합에서 1개의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였다. 매년 실시되던 체육대회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빠졌다. 대신 장터 부스가 설치, 운영되었다.

사라봉 축제는 사라캠퍼스 학생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행사다. 모든 전공에서 자기 전공의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토론회, 사회전, 영어 연극제, 세미나, 체험전, 음악회, 실생활의 유용한 제품 만들기, 영화 제작 및 상영, 미술 전시회 등은 전공별 특성이 축제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주는 좋은 사례다.

그러나 사라봉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첫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예년의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새 프로그램 보급이나 개선을 통해 침

체된 축제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교육대학 학생회에서 체육대회를 폐지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한 점은,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 둘째,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사라봉 축제는 궁극적으로 사라캠퍼스 학생들을 위하여 마련된 ‘ 만남의 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사라캠퍼스 재학생 수가 적다는 한계도 있지만, 학생들이 주로 자신의 전공 프로그램에만 참여한다는 사실이 더 문제다. 초등학교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인 사라캠퍼스 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라봉 축제는 사라캠퍼스 학생들의 교육적인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축제이다. 앞으로 이 축제가 한 차원 높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신 고교·지역 인맥선거… 잘못됐지만 바꿀 수 없다?

기획 학생회 선거 이제는 바뀌어 한다 <2> 인맥선거

상아탑 대학에서도 ‘캔당문화’로 기인한 인맥선거 계속

선배들로부터 “선거운동 도와줄 것” 강요받기도

캔당의 사전적 의미는 ‘돌보는 무리’라는 뜻인 권당(眷黨)의 제주어라고 한다. 이를 단순히 친족, 고종, 외종 등의 친인척을 뜻한다.

캔당을 제주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무시 못할 영향력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제주사회의 캔당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독특한 문화적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앙언론에서도 사전적, 정치적의미로의 ‘캔당’을 해석하는 기사도 실렸을 정도이다.

캔당은 순수하게 제주사회 특유의 유대감 높은 소규모 공동체로 파악한

다. 하지만 이는 제주정치사에 있어 탈정책, 인맥선거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캔당 중심의 정치가 발전을 저해하고 후진적인 사회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성의 상아탑인 제주대에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고등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하는 인맥 중심의 선거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다년간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던 한 학생은 일부 고등학교 대학생 동문회에서 문제를 찾는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축구대회 응원연합 등을 하면서 선배들로부터 선배교육을 받고 나서 대학 입학 후 그 선배들과 다시 만나면서 인맥을 쌓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면서 자기 학생회 선거에 나서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선거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강요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한 학생이 한 선거운동본부(선본)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돌면 상대 선거운동본부에서 그에게 눈치를 주면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학생은 “내가 참여한 선거운동본부의 경쟁 상대의 선배가 연락이 와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참여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그만두고 자신의 선본으로 들어올 것을 제안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학생회 인맥선거의 시작

은 이른바 ‘표작업’을 통해서이다. 이는 어떤 학생이 본인이 속한 선본에 투표를 해줄 것인지 계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표작업을 위해서 특정 학과의 학생명부를 학과 학생 임원이나 기타 관계자 등의 경로를 통해 수집하기도 한다. 확보한 명부에 기재된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얼마나 표가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지지도 조사’인 셈이다.

인맥선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뀌어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얼마

나 될까. 일부 학생들은 뿌리 뽑을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는 맞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학생은 “주위에서는 제주도니까, 제주도가 워낙 작은 지역공동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교육대학 ‘푸른꿈작은공부방’ 아산청년봉사상 수상

2006년부터 건입동 공부방서

형편 어려운 초등생 교육

사라캠퍼스 교육대학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푸른꿈작은공부방(방장 김동성 초등과학교육전공 3)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제25회 아산상에서 청년봉사상 부문을 수상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1일 300여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한 결과 대상인 아산상을 비롯해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청년봉사상, 재능나눔상, 효행·가족상, 다문화가정상 등 총 9개 부문 수상자를 결정했다.

푸른꿈작은공부방(이하 공부방)이 수상한 청년봉사상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고 있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동아리에 수여하는 상이다. 공부방은 지난 2006년 집안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교육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제주시 건입동 제주동초등학교 인근에 마련됐다.

올해 8기까지 80여명의 교육대학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방을 찾은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고 있다. 공부방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법을 연구해 가르치고 있다. 매년 한차례 이상 1기부터 8기 회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



25일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푸른꿈작은공부방에서 허은지(초등국어교육전공 1) 학생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요한 수업 정보를 공유한다.

김동성(초등과학교육전공 3)씨는 “공부방이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방이 쌓아놓은 활동들을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 있다”면서 “심사 기간 동안 객관적으로 공

부방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초심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산상 시상식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청년봉사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나연 기자

유네스코제주협회와 협약

각종 교육활동 협력기로

제주대가 지난 28일 유네스코제주협회(회장 양창헌)와 교육활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제주지역 청소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운영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 지원 △유네스코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 양 기관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직무대리 신동범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전화(내선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제33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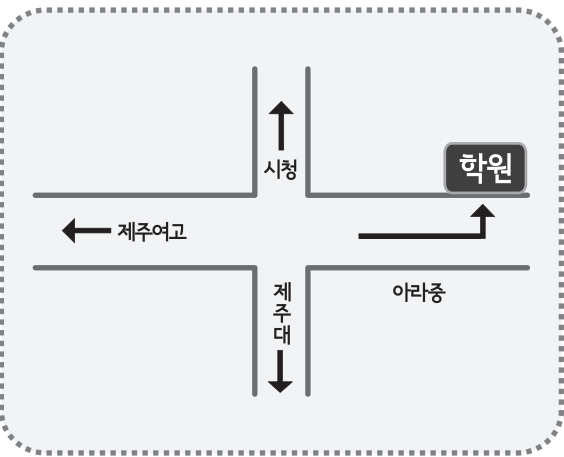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상 접수하며,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ac.kr로 제출해야 함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18:00까지
4.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6. 발표 : 제주대신문 2014년 신년특집호
(2014년 1월 1일 발행 예정)

신문방송사 제주대신문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 국립제주대학교

2014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학위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3.10.14.(월) 10:00 ~10.17.(목) 17:00	2013.11.19.(화) 10:00 ~11.22.(금) 17:00	·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첨부제출 서류 (우편, 택배, 방문)	2013.10.14.(월) ~10.22.(화) 18:00	2013.11.19.(화) ~11.27.(수) 18:00	· 제출처 : 우)690-756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토·일요일은 휴무 · 제출서류 미비시 불합격처리
실기고사 (음악학과)	2013.10.29.(화) 10:00~		· 장소 : 음악관
필기고사		2013.12.13.(금) 10:00~	· 장소 :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면접고사	2013.10.29.(화) 10:00~ 2013.10.29.(화) 14:00~	2013.12.13.(금) 15:00~	· 장소 : 학과사무실 · 장소 : 음악관, 미술관
합격자 발표	2013.11.18.(월) 예정	2014. 1. 10.(금) 예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개별통지 안함

※ 1.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은 일반전형으로만 모집합니다.

2. 특수대학원(교육·경영·행정·산업·사회교육대학원) 및 통역번역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각 대학원별로 실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전 화 : 064-754-2045 홈페이지 : http://ibsi.jeju.ac.kr



총장 선거 현직 응모시 ‘사퇴’ 아닌 ‘직무정지’ 키로

추천관리위원회 교육부·전문가 자문 받아 최종 결정

일부 공모희망자 비난에 추천관리위 “문제 없다”

총장 추천관리위원회가 현직 총장이 자기 총장임용후보자 응모에 나설 경우 ‘총장직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치환)는 지난 9일 대학 홈페이지 ‘제주대 소식’과 대학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부와 대학교문변호사 등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관한 자문 결과를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

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교육부 등의 자문 결과에 따라 현직 총장이 공모에 접수할 경우 총장직에서 사퇴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정책과는 추천관리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호에서 대학의 장(長)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총장 선거규정 제5조가 총장이 후보자 공모에 응모한 경우 직무

대리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 현 총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현직 총장이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문을 보내왔다. 또한 “직무대리를 지정하면 굳이 총장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대학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도 공지했다. 위원회는 “고문변호사가 ‘선정규정 제19조 6호 규정의 학무위원에 총장을 포함할 경우 규정 4조 등 전체적인 맥락의 취지에 반한다며 적에서 반드시 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천관리위원회는 총장공모 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일부 총장임용후보 응모희망자들의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공모 공고 개시일 이전에 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공모희

망자들은 추천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반박했다.

총장임용후보 응모희망교수 4인은 대학 전자게시판에 ‘전국대학이 지켜보고 있다’는 제하의 글을 실었다. 해당 교수들은 “추천관리위원회는 총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교육부에 자문을 받았다고 그 내용을 대서특

필하면서 전 대학 구성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자게시판을 통해 “고문변호사와 교육부의 해석을 만장일치로 수용해 추천관리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지 기자

제3회 평생교육축제 24일 성황리에 열려

아라뮤즈홀에서 다채로운 공연… 한라터에서는 전시관, 체험관 운영

제3회 평생교육축제가 24일부터 이틀간 한라터와 아라뮤즈홀 등지에서 열렸다. 평생교육원(원장 이경갑)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원생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공연과 전시·체험관을 운영했다.

축제 첫날인 24일 아라뮤즈홀에서는 1부 개막식을 시작으로 2부에는 우리문화를 주제로 한 평생교육원 원생들의 판소리, 국악 교실, 한국무용, 제주민요, 창작 수필 낭송 등을 선보였고 3부에서는 색소폰, 오카리나 연주와 관객과의 합창 순으로 마련했다. 25일에는 원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대학 정

문을 시작으로 자연과학대학 1호관, 공과대학4호관, 인문대학 등을 지나 학생회관까지 제주대 곳곳을 누비며 길트기 행사를 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학생회관 앞 한라터에서 원생들의 작품 전시관·체험관을 운영해 원생들의 수필작품 전시, 서양화 작품 전시, 드로잉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또 바리스타 체험, 문패 제작 체험, 손수건 및 스카프 염색체험, 생활건강 테이핑, 각종 시음회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통해 그동안 같고 닮은 솜씨를 뽐냈다. 김명수 기자



지난 21일 오현봉 명예박사 흉상 제막식이 사슴공원에서 열렸다.

오현봉 명예박사 흉상 제막

대학에 총 15억원 출연… 21일 사슴공원에서

오현봉(유성건설 회장·JIBS 부회장) 명예 경영학박사 흉상 제막식이 지난 21일 사슴공원에서 열렸다.

흉상 제막식은 오현봉 박사 내외, 허향진 총장,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 우근민 도지사, 김양수 JIBS 사장 등 많은 축하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제막식에서 오현봉 박사는 “이러

한 자리가 있기까지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봉 박사는 지난 1998년 5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시작으로 BK21 사업단과 누리사업단 대응자금 등 현재까지 총 15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박소연 기자

제주도개발공사, 인력양성관 건립기금 1억원 기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운)가 지난 17일 인재양성관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인재양성관 건립 사업은 총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발전기금 후원자 모금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재양성관 사업은 국가고시와 각종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및 산학협력비로 현재까지 대학에 총 18억9000만원을 출연했다.

한편 이날 양 기관은 협약도 체결해 ‘인재양성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교류와 지원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박소연기자

의학분관 소장자료 중앙도서관에서도 빌릴 수 있다

의학분관 도서관(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책을 중앙도서관에서도 빌려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제주대 학생, 교수, 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의학분관이 아라캠퍼스에서 제주대학교병원내 신축 건물로 이전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료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중앙도서관과 의학분관간의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탈탈자료가 있는 경우 본 자료만 대출할 수 있다. 또 도서관 규정상 대출이 불가한 자료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문의= 중앙도서관(전화 754-2216~7) 또는 의학분관(전화 754-8020)

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학생 1인당 103만원… 등록금 대비 54.9% 지원

제주대가 올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가 등록금의 절반을 넘어서 ‘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4년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했던 제주대는 올해에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평균 0.39% 인하한 바 있다.

대학은 올해 1학기에 학부생에 지급된 총 장학금은 10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3만 952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2만750원보다 11.4%나 크게 늘어난 규모다.

올해 1학기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은 189만1500원, 등록금 대비 54.9%를 장학금으로 반환한 셈이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학금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을 전년보다 36억원 더 받았고 발전기금과 외부기관단체를 통한 장학금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대는 올해 2학기까지 지급될 장학

총액은 215억9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81억8000만원보다 15.7% 늘어난 규모이다.

이에 따라 대학 분부는 올해 1인당 평균 장학금은 208만4000원으로 추정돼 등록금 대비 55.1%를 장학금으로 지원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복지와 관계자는 “올해 제주대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등록금을 실현하면서 장학금 늘려 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며 “앞으로 발전기금 확충과 국책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 저렴한 등록금 유지와 함께 재정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TU 사업단 미국 7개 대학과 GTU 사업추진 협약

온오프라인 강좌 개설 운영 등… “글로벌 교육 역량 제고”



지난 16일 GTU사업단(단장 송일상)이 보이스 주립 대학교 총장 Robert.W.Kustra 보이스 주립 대학교에서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했다.

GTU 사업단(단장 송일상)이 지난 14일부터 10일간 미국 7개 대학을 방문해 현지 대학과 GTU 사업 협정을 체결했다.

GTU 사업단은 일부 방문대학과 3+2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다. 3+2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3년간 해외 대학과 연계를 통한 수업을 수강하고 국내 교사자격 취득을 하게 된다. 이후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해 해외에서 2년간 해외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보이스 주립 대학교는 3+2 형태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내년 봄 학기부터 10명 내외의 학생을 보내고 점진적으로 20명까지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위스콘신 대학 등의 대학과는 복수학사학위 및 미국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추후 협의를 통해 이들 대학에 5명 이내의 학생을 선발해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델라웨어 주립대학 등과는 온/오프라인 강좌 개설 및 운영, 복수학위 취득 등에 대해 추후에 추가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해외 대학 방문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체계적인 복수학위 및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부찬우 기자

‘4·3과 여성’ 학술 세미나

11월 1일 평화연구소 주최

평화연구소(소장 고성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제주 4·3과 여성에 관한 학문적 체계 수립’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사회 고성준 소장)으로 권귀숙 사회학 박사가 ‘4·3과 젠더 : 기업의 역사화와 여성’, 유철인(철학교) 교수가 ‘4·3경역에 대한 여성 구술생애사’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제2세션(사회 변종현 초등윤리교육전공 교수)에서는 허영선(전 제민일보 편집부 국장)이 ‘제주 4·3시기 여성의 경험과 트라우마’, 김동운(국어국문학과) 교수가 ‘4·3소설의 여성 형상화 양상과 그 과제’, 고성만 일본 고베대 교수가 ‘이행기를 사는 여성들 : 분쟁후 사회에 있어 민간인의 죽음에 대한 대처’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각 세미나별로 세션 주제 발표후에는 토론이 진행된다.

문의= 평화연구소(전화 754-3260)

드림필드 풋살구장 14일 개장… 제2운동장에 조성

개장식에 히딩크 감독 방문

사회체육발전에 기여 기대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구장이 지난 14일 개장했다.

제주대와 ‘허정무-거스히딩크 재단’ 간의 풋살구장 조성 협약을 통해 설립된 풋살구장은 가로 20m, 세로 40m의 800㎡ 규모로 지어졌다.

제2운동장에 개장한 풋살구장은 지난 6월 12일 제주지역 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이 추진됐다.

개장행사에는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 박토마스 히딩크 재단 이사, 서창우 파파존스 코리아 회장, 송승전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양석우 제주도 축구협회 회장, 고영호 제주도 장애인축구협회 회장, 박경훈 제주유나이티드 감독과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박토마스 히딩크재단 이사사의 재단 연혁 발표와 히딩크 전 감독의 축사, 허



14일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구장이 개장한 가운데 허향진 총장과 히딩크 전 감독이 시축하고 있다.

향진 총장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후 기념비 제막식과 허향진 총장의 감사패 전달 및 시범경기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히딩크 감독은 이날 축사에서 “드림필드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꿈을 위해 드림필드 건설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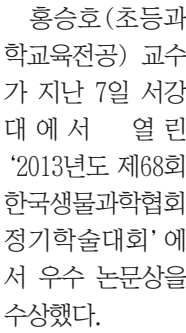
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열정과 꿈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허정무-거스히딩크 축구재단은 지난해 3월 20일 “한국 축구가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을 갖춰 축구 꿈나무를 지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강수빈 기자

사람들

홍승호(초등과학교육전공) 교수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홍승호(초등과학교육전공) 교수가 지난 7월 서강대에서 열린 ‘2013년도 제68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통합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유전학회 등 5개 학회가 연합해 주최했다.

홍 교수가 발표한 연구 논문명은 ‘Effects of apolipoprotein AI gene polymorphisms on Korean metabolic syndrome patients’. 홍 교수는 논문을 통해 대사증후군 특이 유전자형과 위험인자와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홍 교수는 올해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에서도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대 이어 이번이 4번째 수상이다.

이정석(의학과) 교수

‘마르퀴즈…’ 인명사전 등재

이정석(의학과) 교수가 세계 3대 인명

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4년판’에 등재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치매 관련 연구를 통해 국제학술지와 국내외 학술대회 등에서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 한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니레시 사르마 대학원생

세계축산학회 우수 논문상

니레시 사르마(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 전공)원생이 지난 15일부터 6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1회 세계축산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 논문(지도교수 정동기) 발표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제주 흑돼지의 육질과 성장에 관련된 전사체의 생물정보학적 분석 연구’다.

이번 11회 세계축산학회 학술발표대회 행사에는 모두 10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 용어 ‘재일한국인’ 적절

학술기고 재일한국인의 개념 연구



이창익
재일제주인센터장
일어일문학과 교수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은 통계상, 530,046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통계밖에 있는 수를 합치면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와 도일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다.

제주출신들의 집단 거주지역인 아카이노 등지에서는 한국식 전통문화와 일본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한국문화 안에는 제주문화와 그 외의 지역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차별을 견뎌내기 위해 많은 재일한국인들이 국적을 숨기며 살아가기 100여년. 현재 재일3, 4세는 정체성의 혼란을 넘어 일본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국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고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 동질성마저 희박해지고 있다. 또한 이념과 시대의 대립으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나뉘어 이질적인 문화와 정체성의 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재일한국인 사회에 대해 일본인들은 배타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만 긍정적·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시각들은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에서도 나타난다. 호칭 속에 숨어있는 의미에는 시대와 상황 그리고 상대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또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 호칭을 통해 바라보는 재일한국인의 개념과도 맞닿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일한국인의 개념을 조명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을 조명하기 위해서 먼저, 재일한국인의 도일시기와 과정을 살펴보고 시기 혹은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어 재일한국인에 대한 용어를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한국인의 도일

1. 한일병합 이전의 도일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도일한 것은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병합 이후인데, 집단적 이주는 농경문화를 일본으로 전수한 고대 야요이 인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도래인(渡來人)

이다. 또한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자연스레 일본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이들은 근·현대에 이주한 사람들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1876년, 일본과 수호조약이 체결되어 쇄국의 문을 연 조선은 조선통신사 등의 방일을 계기로 소수의 유학생들이 도일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정치적 망명자가 생기면서 근대의 자발적 이주가 시작되었다.

2. 한일병합에서 해방까지의 도일

한일병합 이후 도일 시기를 대략 4기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다.

- 제1기 1910~1919년까지 유치기
- 제2기 1920~1930년까지 조절기
- 제3기 1931~1938년까지 억제기
- 제4기 1939~1945년까지 강제 연행기

제1기는 한일병합 이후 일본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일본인 지주나 친일파 한국인에게 분배하는데 이 때 일만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거나 실업자가 되었다. 이 시기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은 군수산업과 방직산업이 발달하여 값싼 노동력을 확보가 시급했다. 이런 시대 상황이 배경이 되어 본격적인 도일이 시작되었다.

제2기는 제1차 『産米増産計画』에 의해 농촌이 몰락하게 되었다. 그리고하여 많은 농민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일하게 되었다. 1923년에는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연락선인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호가 취항하여 많은 제주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오사카 등에 집단 이주를 하게 되었다.

제3기는 일본의 군수산업의 증공업화 정책으로 노동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난에 허덕이던 다수의 한국 농민들이 도일하게 되어 재일한국인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제4기는 태평양전쟁으로 인적자원이 시급했던 일본이 강제 연행 등에 의해 대다수가 타의적으로 도일한 시기였다. 1939년에 96만여 명이었던 한국인들이 1945년 5월(추정)은 210만여 명에 이르러 상당수가 강제 연행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해방 이후의 도일

해방이 되자 최대 210만여 명이었던 수가 1946년에는 64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4·3사건과 한국전쟁 등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항하여 정착하게 된다. 이들은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만 도일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70년대 말까지 생계의 수단으로 밀항을 시도하였다.



지난 1963년 1월에 재일본제주도민회가 일본 오사카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4. 뉴커머의 도일

80년대,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 유학생이 늘어나고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들 상당수는 일본에서 정식취업이 되었거나 영주권을 얻게 된다.

‘재일한국인’의 개념규정과 호칭, 그리고 의미와 문제점

1. 일본 내의 호칭과 의미 그리고 문제점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을 부를 때, 현재 ‘재일 조선인’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적으로 병합한 후, 한국과 북한이 건국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재일조선인’이라 불렀다. 도쿄대의 도노무라 마사루 교수 역시 ‘재일조선인’으로 부르고 이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규정이 일본인의 시각에서 바라 본 것으로, 용어규정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일 조선인’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여 한다면,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그 시대의 국호에 맞게 엄밀한 의미에서 양분되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체결과 함께 한국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재일한국·조선인’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때부터 국적에 의해 재일조선인 또는 재일 한국인으로 구별되기 시작했다.

필자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를 ‘재일한국인’으로 호칭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 흔히 쓰고 있는 ‘재일 조선인’ 속에는 ‘조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두운 이미지와 차별적이란 이미지가 있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 필자가 사용하는 ‘재일한국인’은 한반도 전체의 대표가 ‘한국’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재일’과 ‘한국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씀으로써 ‘재일한국인’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대립을 피하기 위해 ‘재일 한국·조선인’, ‘재일 한국인·조선인’이 나타나고 있지만 음절 수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이를 한 단어화한 ‘재일 코리아인’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재일 한인’이 훨씬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 보여진다. 그 외 ‘조선진(朝鮮人)’, ‘센징(鮮人)’, ‘반도인(半島人)’, ‘다이상쿠쿠진’ ‘가이진(外人)’ 등은 차별이어서 일부 일본인들이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표현이다.

2. 재일한국인의 개념 규정의 문제점

앞서 도노무라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일본국적의 재일한국인 처는 재일 한국인인가? 둘째, 귀국 교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셋째, 귀화자도 재일한국인인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첫째, 둘째는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세 번째의 귀화자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일한국인’의 범주는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 유지 여부이다. 이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가면서

‘재일한국인’의 개념론에 관한 본질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단 이 개념을 추출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도일의 역사와 과정, 호칭,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재일한국인’의 개념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용어도 각자 다를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용어선택과 개념 규정을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미래를 간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재일제주주의 민족교육’ 초록

재일동포 정체성 회복 위해 민족역사교육 강화 시급

재일제주인센터 학술대회서

‘재일제주주의 민족교육-민족교육의 선구자 재일제주인 조규훈을 기억하며’을 주제로 지난 2일 문화교류관에서 재일제주인센터 학술대회가 열렸다. 다 음은 발제 및 토론 요약.

일본 지역 한국계 민족학교 민족교육의 현황과 과제 및 발전방안 - 김성대 백두학원 이사장

제외에서의 민족교육은 일본에서 건국학교 창립으로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의 근대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의 한국계 학교와 설립 배경 및 환경이 다르다.

그러나 일본지역 한국계 민족학교는 조국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강제 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여들인 사람들과 해방이 돼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후세대의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한 순수한 민족학교였다. 재일 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차별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학교를 설립해 지켜왔기 때문에 전세계 민족교육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민족학교는 한일 양국 정부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 충분한 시설투자나 교원 확보가 쉽지 않아 일본의 우수한 사립학교에 비해 낙후돼 있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정부도 일본지역 특히 관서지역의 민족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학교발전엔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현지의 학교구성원들과 한국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민족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김명지 기자



2일 재일제주인센터 학술대회에서 김성대 백두학원 이사장(오른쪽)이 일본 지역 한국계 민족학교 민족교육의 현황과 과제 및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라인들이 이곳에 다있다’ 사라캠퍼스 사봉축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열려

사라캠퍼스 축제인 사봉축제가 교육대학 학생회(윤정환 초등과학교육전공 3) 주최로 지난 24, 25일 이틀간 미래창조관,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사봉축제는 지난 2011년 ‘대학의 꽃인 축제가 없는 현실을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해 올해 3회를 맞이했다.

이번 축제는 각 전공별 학술제, 과부스 마련 및 무료 영화 상영, 재능기부 부스 마련을 통해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 첫째 날에는 마스터 셰프 사라, 교대 과담 등이, 둘째 날에는 사라 갓 탤런트, 동아리 합동 공연이 있었다.

이번 학술제는 예년과 달리 ‘학술 체육대회’와 ‘과춤 경연 대회’가 사라졌다. 체육대회는 더 이상의 휴강을 내기 어렵다는 교학처와, 학생회의 논의 끝에 폐지됐다. 과춤 경연 대회는 강제성 논란이 불거져 나온 가운데 전교생 설문조사 결과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사라졌다.

축제에서는 각 전공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학술 행사가 진행됐다. 24일 초등사회과 교육전공의 원경화상강의실에서 ‘꽃자왈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초등수학교육전공은 사라교육관에서 교육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원리를 이용한 게임을 진행했다.

초등체육교육전공은 체육관에서 음악 줄넘기 공연을 했다. 초등영어교육전공은 미

래창조관에서 제주도 초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영어 연극제를 진행했다. 초등윤리교육전공은 원경화상강의실에서 ‘전도 어린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초등음악교육전공은 시청각실에서 오케스트라, 밴드, 아카펠라 등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 ‘음악과 음악과’ 음악회를 열었다.

25일 초등실과교육전공은 실과관에서 교육대학 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향초와 비누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술 체육대회’·‘과춤 경연대회’ 논란 끝 사라져

전공별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즐기는 축제 만들기

학생참여·행사시간·부스위치 등 일부 준비 아쉬워

초등과학교육전공은 사라교육관에서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흡연률 용가리와 젤 양초를 만들었다. 초등컴퓨터교육전공은 시청각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작한 영화 ‘대학가는 사람들’을 상영했다. 초등교육학전공은 원경화상강의실에서 교편을 바로자는 방법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주최했다.

24일부터 이틀간 초등국어교육전공 학생들이 직접 쓴 시를 전시하는 시화전 ‘보물’이 사라교육관과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초

등미술교육전공 학생들의 작품이 담긴 미술 전시회 ‘창조다움’이 미래창조관에서 개최됐다.

각 전공별로 음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일가게도 열렸다. 초등국어교육전공과 초등실과교육전공이 김침치의 관광 카페를 열어 음료를 사면 관광을 봐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초등과학교육전공과 초등컴퓨터교육전공은 추억의 불량식품과 후르츠칩 등을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다. 초등미

‘학술 체육대회’·‘과춤 경연대회’ 논란 끝 사라져

전공별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즐기는 축제 만들기

학생참여·행사시간·부스위치 등 일부 준비 아쉬워

술교육전공과 초등교육학전공은 한 사람이 먹을 양을 판매하는 1인 주점을 열었다. 초등수학교육전공과 초등체육교육전공이 카페를 열어 음료와 토스트를 판매했다. 초등사회교육전공과 초등음악교육전공은 뮤직바를 열어 컵테일을 사면 신청곡을 연주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초등윤리교육전공과 초등영어교육전공은 막걸리, 파전을 파는 주점과 추억의 게임 카페를 운영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재능기부의 형태로 네일아트부스도 운영됐다. 이는 교육대학 학생들의 재능으로 모금한 돈을 불우 이웃에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봉 축제 기간 동안에 학생회는 교사교육센터 강의실을 빌려 무료 영화 상영관도 열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창조관 앞에서 ‘크게 라디오를 켜고’ 부스도 운영됐다. 사연과 듣고 싶은 음악을 학생회에 보내면 ‘크게 라디오를 켜고’ 부스에서 노래를 틀어줬다. 미니 게임 ‘숨은 학생회 임원을 찾아라’도 운영됐다. 교육대학 여기저기에 있는 학생회 임원을 찾아 함께 사진을 찍고 ‘크게 라디오를 켜고’ 부스로 보내면 소정의 상품이 주어졌다.

교육대학 최고의 요리왕을 뽑는 ‘마스터 셰프 사라’에서는 각 전공별 대표 9팀이 참가해 대결했다. 참가 팀들은 학생회관 1층에서 요리를 하고 학생들은 미래 창조관에서 생중계되는 요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짜장면 빨리 먹여주기, 맥주 빨리 마시기 등의 미니 게임도 즐겼다. 우승팀은 초등실과교육전공 2학년 연승민·박이은·송병주 학생이다. 이날 밤에는 학생회에서 주최한 ‘교대 과담’도 열렸다. 할로윈 데이를 맞아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참가자들은 교육대학 부근을 도는 일종의 답력체험 프로그램이다.

각자의 재능을 뽐내는 ‘사라 갓 탤런트’



25일 열린 사라 갓 탤런트에서 오상훈(초등국어교육전공 4), 현택민(초등미술교육전공 4) 학생이 사탕과 우정 사이를 부르고 있다.

에는 총 8팀이 참가했다. 각 전공별로 10명씩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총 120명의 심사위원단이 우승팀을 가려냈다. 우승팀은 윤세희(초등교육학전공 2), 현동현(초등과학교육전공 2), 유경미(초등사회과교육전공 2), 이경란(초등교육학전공 2)이다. 25일 밤에는 나래, 윈터 오케스트라, 미리내, 사랏골 소리사위, 작은소리 큰 울림 등의 교육대학 공연 동아리들이 합동 공연을 선보이며 사봉 축제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오원목(초등교육학전공 1)씨는 “부스의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이어서 아쉬웠다”며 “다음 축제 때는 부스의 위치를 사라교육관 앞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준호(초등컴퓨터전공 1)씨는 “과 행사가 서로 겹쳐서 다른 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전했다. 서소연(초등교육학전공 1)씨는 “부스 수가 너무 적어 아쉬웠다”고 전했다.

또한 현병철(초등영어교육전공 3) 부학생회장은 “축제 준비에 비해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축제 분위기가 반감됐다”고 밝혔다.

고주희·서예린·한나연·부찬우 기자

» 2013 유니브엑스포 제주 현장

꿈을 꾸고, 그리고 이루다

대학생활 박람회 '유니브엑스포 제주'가 지난 25·26일 이틀간 아라캠퍼스 본관 앞과 교양강의동 등지에서 열렸다. '유니브엑스포 제주'는 제주도내 최초로 기획된 대학생활 박람회로 대학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그 현장을 취재해 봤다.
사진=강수빈 기자/편집=김소영 기자



- 1 학생들의 소원을 적은 종이와 손바닥 지국으로 만들어진 유니브엑스포 판화
- 2 지난 19일 인문대학 MICE 대강의실에서 열린 유니브엑스포 제주 출범식
- 3 부스 '캘그림페 가족단'에서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있다.
- 4 김윤규 (대동경 작곡 청년위원회 위원)씨의 정명 공연 모습



- 5 기초교육원 부스에서 임은숙(강사)씨로부터 한 학생이 직접 글씨 결과를 듣고 있다.
- 6 부스를 돌아다니며 관람하는 사람들
- 7 동아리 '로망스' 공연 모습
- 8 생태 동아리 'ESC' 부스에서 한 학생이 퀴즈를 풀고 있다.

» 영화속 세상 - <인생은 아름다워>

가슴으로 느끼는, 아름다운 인생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한 장면. 극중 주인공 귀도가 탈출을 시도하다 독일군에게 들켜 끌려가는 과정에서 껌에 숨은 아들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윙크를 해보이고 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은 인류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근원적인 물음이다. 지금 내 삶은 행복할까, 나는 지금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물음은 끝이 없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도 또한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게 수긍될 수 있는 정답으로써의 인생이란 사실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크든 작든 파동을 일으키는 어떤 삶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1997년 개봉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는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산 어느 한 인간의 이야기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고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 말 극악한 파시즘이 당대를 지배하던 이탈리아에서 이뤄진다. 낙천적인 성격의 주인공 귀도(로베르토 베니니 역)는 초등학교 교사인 도라(니콜레타 브라시 역)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귀도의 유머러스하고 순수한 모습에 이끌린 도라는 정해진 약혼자가 있음에도 마침내 귀도와 함께 마을을 도망쳐 아들 조슈아를 얻는다. 그러나 나치가 이탈리아를 점령하면서, 유대인이었던 귀도와 조슈아는 강제로 수용소에 끌려오게 된다. 도라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자원하여 남편과 아들의 뒤를 따른다.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도는 조슈아에게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속인다. 조슈아는 귀도의 말을 사실로 믿고 아버지의 지시를 열심히 따른다. 귀도는 고된 강제 부역 속에서 지쳐가면서도 아들을 위해 끝까지 게임에 임하는 것처럼 연기를 계속한다.

마침내 독일은 패망한다. 그러나 혼란한 틈을 타서 탈출을 시도하던 귀도는 독일군에게 탈출을 들켜고 만다. 총부리다 등에 겨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껌 속에 숨어 자신을 지켜보는 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우스꽝스러운 겉모습을 선보이는 귀도. 이 장면에서 이를 때 우리는 희극으로부터 극대화되는 비극 속으로 끝내 빠져 나오는 눈물을 막아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뿌연 시야 속에서도 당사자인 귀도는 여전히 윤택하고 씩씩하기만 하다. 아들이, 아내가 무사히 잘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을 향한 사랑은 본인의 죽음마저도 초연하게 만들고, 절망의 극단에서도 밝게 윙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귀도의 인생은 비극이 아닌 희극이다. 마술처럼 조슈아에게 진짜 탱크를 선물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게임'의 상황에서 승리하게 만든, 눈물 나는 해학의 산물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할 때, 사람마다 대답은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많은 부를 쌓아서 갖고 싶은 것을 쉽게 얻는 삶을, 또 누군가는 사회를 향한 확고한 신념하에 가진 것을 아낌없이 기여하는 삶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을지 모른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그럼에도,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은 알고 있다. 귀도의 인생이 어땠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자신보다 가족을 생각한 헌신과 그 바보같은 낙천성에, 이미 우리는 어떤 벅찬 감정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여기에는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거창한 신념 같은 것은 없다. 누군가의 아버지면서 또한 누군가의 남편인, 한 인간의 인생이 있을 뿐이다. 어느 누가 그의 인생을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김소영 기자

» 유니브엑스포 제주 이모저모

대학생 위한 다채로운 장 마련... 참여율 저조 아쉬워

대학생활 박람회 '유니브엑스포'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아라캠퍼스 본관 앞과 교양강의동 등지에서 열렸다. 유니브엑스포 제주 개최식이 25일 오전 10시 교양강의동 4227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개최식에는 현승환 기초교육원장, 유니브엑스포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참가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준보(사회학과 4) 유니브엑스포 학생조직위원장은 이날 환영의 말에서 "아라벌에서 벌어지는 유니브엑스포 제주는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잘 활용해 대학생들이 미래의 꿈이라는 씨앗을 심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은 앞서 지난 19일 인문대학 MICE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허향진 총장, 현승환 기초교육원장, 송현선 여대생커리어센터장 등 내빈과 유니브엑스포 기획단과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내빈들의 격려사를 비롯해 유니브엑스포 학생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출범 선언으로 이어졌다. 유니브엑스포 제주는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 학생·직업 멘토링 등이 진행됐다. 또 도내·외 동아리, 각종 대외활동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대학생활 박람회로 꾸며졌다.

연사·학생 강연인 '다지밍'은 대학생들의 주 관심사인 꿈, 연애, 해외봉사, 창업, 휴학, 취업 등의 주제를 담았다. 강성찬(디자인엔터테인먼트 대표), 안영일(드림첼린지 대표)씨의 '꿈 지금 다지다-방향해도 괜찮아' 강연을 시작으로 6명의 연사 강연이 열렸다. 청년위원회 위원 2명을 비롯해 이강백(대학생 강연가)씨의 외국어 강연과 6명의 학생강연도 동시에 진행됐다.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해주는 '키우멍'은 대학생들의 주 취업 목표인 대기업, 금융권, IT, 방송분야의 직업을 가진 멘토와의 면담으로 이어졌다. 고정우(신한은행)씨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멘토링과 이외 16명의 각 분야별 멘토들이 학생들과의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강연을 들은 한 학생은 "강연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내 입맛에 맞는 강연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며 "특히 멘토링은 평소 궁금했던 점을 멘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얘기해주셔서 좋았다"고 말했다.

각종 부스와 행사를 다룬 '맷오멍'은 약 42개의 행사 부스와, 블랙다이하운드 등의 6대팀 동아리 공연으로 진행됐다. 네일아트와 메이크업을 무료로 해주는 부스나 한 해 사주를 봐주는 이색적인 부스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타 지역에서 참가한 드림포스트(서울) 부스나 진대원(전주) 부스 등 학생들이 평소 많이 접하지 못했던 분야의 소식들을 전했다. 행사에 참가한 김범수(언론홍보학과 1)씨는 "각 부스마다 흥미로운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며 "많은 동아리와 유익한 단체들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준보 유니브엑스포제주 학생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유니브엑스포 행사라 어려운 점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타 지역에서 열린 행사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나은 콘텐츠를 준비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내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멘토링이나 강연등을 찾았으면 한다"며 "학생들의 참여율이 아쉬웠지만 내년 운영진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 나은 유니브엑스포 축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